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한 산업보건의 미래기술 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일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산업보건환경연구원 박영수 신임 원장을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이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위한 레인 메이커로 거듭나길

Rain Maker

박영수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박영수 원장님.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8년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 산업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협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원장과 (사)한국화학안전협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은 물론, 노동자를 위한 산업현장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해오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안전보건경영, 인사조직, 경영컨설팅,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인노무사로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화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리고 경영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기업 경영컨설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기업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과 (사)한국화학안전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진단 및 산업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틈틈이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책도 집필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의 연구팀을 개편,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안전보건 체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안전보건 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산업보건 분야 연구와 신사업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제조업 분야는 물론,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분야에

필요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 분야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연구원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에 능력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객원연구원으로 초빙하여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제정했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 역시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보건환경 연구를 이끌어가실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산재공화국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요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사회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노동현장의 안전은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이러한 것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평소에도 노동환경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해오셨는데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원장님의 평소 지론이 궁금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안전보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비자발적,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 교육과정에 사내강사 양성과정, 안전보건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민간자격증으로 등록하여 교육의 양과 질이 담보되고 개인의 역량 배양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산업보건」 지면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스스로 항상 되뇌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하고 레인 메이커(Rain Maker)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레인 메이커는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하는 데 필요한 단비를 내리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현대 경영에 적용하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조직을 키우고 수익을 내는 문제 해결자이자 동시에 지휘자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연구원은 물론 대한산업보건협회 구성원 모두가 레인 메이커가 됐으면 합니다. 책도 있으니 우리 협회 직원들이나 연구소 연구원들이 그 책을 읽고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협회 구성원 모두가 레인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기본 철학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용화될 수 없고,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연구는 연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여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구와 노력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통해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연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건」 독자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산업보건 독자인 산업보건 전문가분들과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담당자분들이 우리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연구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보건,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안전보건 관리의 철학으로 정립하여 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